

農村住民의 社會觀과 對政府 態度的 社會學的 分析

金 東 一

首席研究員, Ph.D.(社會學), 農村社會研究室

- I. 社會變遷과 不確實性의 문제
- II. 農村住民의 社會觀과 對政府 態度的 現狀과 분석
- III. 結論: 새 農政의 方向

I. 社會變遷과 不確實性의 문제

1970년대는 숨가쁘게 韓國 社會가 傳統農耕社會에서 近代產業社會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變遷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英國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발해서 그 후 뒤따라서 나머지 서구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겪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몰려와 부녀자와 아동들까지 하루 12~14시간씩 공장 노동을 하여 新興企業主들에게 착취당해야 했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社會主義 세력이 세계의 반 조각을 휩쓸기 시작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 갈 때의 過渡期的 社會混亂과 문제들을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가장 잘 지적해 준 학자가 불란서

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켄(Emile Durkheim, 1858~1917)이었다. 뒤르켄은 이와 같은 過渡期的 社會變遷 過程을 아노미(Anomie)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회 혼란과 더불어 발생하는 社會組織과 規範의 混頓스러움 또는 不確實性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노미 시대, 즉 無規範, 無秩序, 無道德性으로 규정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수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천과정의 혼란스러움에 適應을 못하는 사람들은 自殺을 기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¹ 뒤르켄이 조사해 낸 소위 “아노미적 自殺”(Anomic suicide)이 서구사회를 휩쓴 것은 급격한 사회변천 과도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표시해 주는 것이다.

70년대의 과도기는 80년대인 지금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를 향해 출달음치는 과도기의 사회 문제의 뿌리는 뒤르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 조직의 밀바탕이 되는 社會 規範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對人 關係에서의 不信感, 사회 현상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社會規範, 또는 道德律에 대한 懷疑에서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의 원인은

정부내지 몇몇 정책 결정자 또는 정치가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에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과도기의 사회 문제는 보다 巨視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지도자나 정책 결정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主題는 高度 産業社會를 향해 바쁘게 변천하는 과도기적 상황해 처해 있는 농촌 주민들의 社會心理的 狀態를 파악하고, 이러한 농촌 주민들의 生活觀 내지 社會觀 또는 사회에 대한 태도가 정부에 대한, 특히 農政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II. 農村住民의 社會觀과 對政府 態度의 現況과 분석

금년 초에 실시한 東亞日報社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無法, 無規範 意識은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소위 中流 階級層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아노미적 상황에서 법질서나 道德律을 신뢰하지 못하고 不確實性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원 농촌사회연구실에서는 특히 농촌 주민들 사이에 아노미와 不信感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년 5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90개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들 5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지역은 全南大學校 社會學科에 의뢰해서 조사했고, 나머지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5개 도에서는 경험있는 면접자들을 동원해서 본 연구실 직원의 감독하에 直接 面接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540명의 조사 대상자 중 76명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마을의 현직 里長들이었고, 나머지 464명은 一般 住民이며, 이 두 그룹의 生活觀, 社會觀, 對政府 態度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농촌 주민들의 無規範性

농촌 주민들의 無規範性, 즉 아노미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의 <表 1>에 나타나 있다. 表 오른쪽의 百分率을 왼쪽의 질문 항목에 대한 肯定的인 反應을 里長과 일반 주민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위의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 대한 不信感과

表 1 아노미적 상태*

質 問 項 目	里 長	住 民	合 計
1.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연줄이나 배경이 없이는 출세하기 힘들다.	61%	80%	77%
2. 요즘 세상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다.	70	78	77
3. 요즘 세상엔 출세하려면 정직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일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45	43	43
4. 사람은 편안하게 살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되도록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28	39	35
피 면접자 총계	76명	464명	540명

* John P. Robinson and Phillip R. Shaver (eds.),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3, pp. 245-294에서 선정된 13개 項目 중 要因分析에 의해 作成한 것임

道德律에 대한 회의가 얼마나 깊은 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일반 주민들 중 80% 가량이 연줄이나 배경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출세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社會制度和 規範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것이다. 물론 일반 주민들에 비하면 里長職을 맡은 지도자층에서는 社會規範과 風潮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의 정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해할 만한 일이지는 하나, 그래도 마을 지도자조차 연줄이나 배경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믿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농민들 사이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項目에 대한 반응도 농촌 주민들의 인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나타내어준다. 일반 주민의 78%, 이장들 중 70%가 對人關係에 대한 불신감을 표명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첫 번째 項目인 社會組織내지 規範에 대한 불신감과 어느 정도 일관성있는 반응이다. 단지 항목 1과 2에 대해 이장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61% : 70%), 이것은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조직과 제도에 대한 불신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반응은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 社會組織에 대한 同一觀 (identification) 경향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심을 끌 만한 사항은 項目 3과 4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反應인데, 項目 1과 2에 비해 비교적 낮은 贊成率을 보이는 것은 농촌 주민들의 生活觀내지 社會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즉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법스러워서 사회제도가 인간은 못 믿어도 자신들의 처세나 행동에 관한 한, 부정적하거나 부도덕해서는 안된

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출세하기 위해서 나쁜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고 믿는 농민은 과반수도 안되는데 (지도자 45%, 일반 주민 43%), 이러한 반응은 社會變遷期에서 오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 주민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일부를 지켜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소개한 東亞日報의 全國的 標本에 의한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반응과 대조되는 것인데, 도시 사람들 보다는 시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확고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項目 4에 대한 낮은 贊成率은, 불리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밝은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온 나라가 고도산업사회를 향해 질주하는 혼란스러운 변천 과정에서도 한국의 농민들은 무엇인가 확고한 “일에 대한 倫理觀”(work ethic)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도시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서 얻은 반응을 농촌의 반응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대조되는 자료가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필자가 1974년부터 1976년에 걸쳐서 우리 나라의 자동차 공장과 정유 공장에서 근무하는 都市 勞動者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경험을 회고해 보면, 아마 농민들이 훨씬 더 견실하게 일에 대한 倫理觀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소개한 無規範性 尺度(anomie scale)의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評價하면 項目 1, 2와 項目 3, 4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들은 사회와 인간은 불신하면서도 자신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

람이라는 애매한 生活觀내지 世界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一貫性이 없는 사회에 대한 態度는 過渡期的 混亂期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社會心理的인 現狀인데, 일관성이 없는 애매한 태도 그 자체가 농민들의 아노미적 성격을 잘 지적해 주는 지표라고 보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러한 불확실스럽고 애매한 태도는 아래에서 보고되는 농민들의 자기 고장 또는 지역에 대한 態度에서도 잘 나타난다.

2. 농촌 주민의 居住地域에 대한 態度

위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촌 주민은 비교적 사회 전체에 대한 信賴度가 낮고, 국가 사회의 기반이 되는 規範과 倫理體系에 懷疑的 또는 悲觀的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기 고장이나 지역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농촌 주민들의 지역사회 즉, 居住部落에 대한 態度를 측정하는 데 본 연구실에서는 두 가지의 社會心理 尺度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地域社會 統合(community integration)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락의 統合尺度(village integration scale)이고, 또 하나는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滿足感이나 期待를 측정하기 위한 居住部落 滿足尺度(village satisfaction scale)이다.

〈表 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나라 농촌 주민들은 비교적 자기 고장 사람들과 깊은 一次的 關係(primary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기 부락이 統合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① “동네사람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②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쨌든 애석한 일이다,” ③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 사람하고 상의할 경우가

많다,”의 세 가지 項目에 대해서는 一般住民의 경우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里長의 경우 주민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보이거나, 이것은 指導者層의 사람들이 동네 인심이나 統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가진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項目 “동네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에 대해서는 주민의 22%, 이장의 28%가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70% 이상의 농촌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남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서, 부락 주민의 統合程度가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項目에 비해 項目 4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좀 낮은 것은 어딘가 주민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態度가 一貫性이 약한 애매한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表 3〉에서는 농촌 주민들의 자기 부락에 대한 좀 다른 태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表 3〉의 3개 項目은 주민들의 자기 부락에 대한 滿足度를 측정하는 것인데,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농촌 주민들은 자기 부락의 현재 상태에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悲觀的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지도자급인 里長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 불만스럽고 장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고장을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전 주민의 65% 특히 이장의 71%가 그 고장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一貫性있는 현상이다.

〈表 2〉와 〈表 3〉을 비교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表 1〉의 無規範 尺度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 주민들의 자기 부락에 대

表 2 地域社會 統合程度*

質 問 項 目	里 長	住 民	合 計
1. 이 동네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이다.	91%	93%	93%
2.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쨌든 애석한 일이다.	82	90	89
3.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 사람하고 상의할 경우가 많다.	88	91	91
4.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	28	22	23
被面接者 總計	76명	464명	540명

* Ted L. Napier and Moody Cathy Wright, "The Social Impact of Watershe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Water Resources Bulletin*, 15, 1979, pp.692-705에서 선정된 10개 項目 中 要因分析에 의해 作成한 것임.

表 3 地域社會 滿足度*

質 問 事 項	里 長	住 民	合 計
1. 이 동네에는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62%	52%	54%
2. 이 동네가 앞으로 크게 잘될 전망은 별로 없다.	70	66	67
3.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을 때도 가끔 있다.	71	64	65
被面接者 總計	76명	464명	540명

* 表 2의註와 같음.

한 견해 또는 태도가 一貫性이 약하고 혼돈스럽거나 애매한 데가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지금까지 다른 사회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表 2>의 項目에 대한 반응과 <表 3>의 項目에 대한 반응은 대개 비슷하게 나타나고 一貫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한 농촌 지역의 경우에 한편으로는 부락내의 統合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부락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의 不一致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地域社會가 統合은 되어 있어도 不滿스러울 수 있고, 滿足스러우면서도 지역내 統合이나 단결이 약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妥當性이 있는 가는 앞으로의 보다 자세한 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성질의 문제이다.

3. 농촌 주민들의 農業政策에 대한 態度

다음 <表 4>는 “현재의 農業政策에 대해 滿足인지 아니면 不滿인지”에 관한 反應을 보여 준

表 4 농촌 주민의 農業政策에 대한 滿足度

	里 長	一般住民	計
만족스럽다	12%	25%	23%
불만이다	88%	75%	77%
계	100% (76명)	100% (459명)	100% (540명)

百分率差 12.5% (p=.05)

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주민들 중 정부의 農業政策에 대해서 77%가 불만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도자급인 이장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농촌 주민들의 政府에 대한 否定的인 見解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보는 데 있다.

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농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문제점이나 要望事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의 불만의 원인을 巨視的인 觀點에서 찾아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급격한 社會變遷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즉 無規範性的

表 5 農業政策에 대한 農民의 태도와 아노미, 地域社會 統合 및 地域社會 滿足變數의 相關關係(Pearson's r)

		아노미적 상태				地域社會 統合정도				地域社會 滿足度			
		1. 연 줄	2. 친 구	3. 출 세	4. 일	5. 가족	6. 이웃	7. 떠남	8. 무관심	9. 불편	10. 전망	11. 다른데	12. 농업정책
아노미적 상 태	1. 연 줄	1.00	.15	.17	.14	-.04*	.03*	-.03*	-.07*	-.01*	-.05*	-.05*	-.09
	2. 친 구		1.00	.13	.12	-.05*	-.07*	-.01*	-.10	-.06*	-.06*	-.09	.07
	3. 출 세			1.00	.16	-.06*	-.13	-.11	-.09	.09	-.07*	-.11	.07
	4. 일				1.00	.07*	-.03*	.09	-.04*	-.02*	.05*	-.01*	-.08
地域社會 統合정도	5. 가 족					1.00	.13	.22	.23	.10	.07	.06*	-.12
	6. 이 윗						1.00	.13	.10	.00*	.06*	.04*	-.08
	7. 떠 남							1.00	.18	-.03*	.14	.11	-.14
	8. 무관심								1.00	.10	.10	.03*	-.07
地域社會 滿 足 度	9. 불 편									1.00	.21	.29	-.26
	10. 전 망										1.00	.12	-.21
	11. 다른데											1.00	-.17
12. 農業政策													1.00

* 有意水準 .05에서 의미없음.

據頭가 정부에 대한 농민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보다 조금 낮은次元에서 농촌 주민의 자기 居住地域에 대한 統合 및 滿足도가 對政府 態度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表 5〉는 〈表 1〉, 〈表 2〉, 〈表 3〉에 있는 항목과 〈表 4〉에 있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의 相關關係를 제시해 준다. 먼저 變數, 1, 2, 3, 4 등 아노미적 상태를 가르키는 變數와 變數 12 즉 農業政策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약한 편이지만 모두 有意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부락내의 統合의 정도를 나타내는 變數 5, 6, 7, 8과 農業政策에 관한 變數 12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 역시 모두 有意相關 關係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아노미 變數와 농업정책에 관한 變數의 관계보다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

끝으로 居住地域社會에 대한 滿足도를 나타내는 變數 9, 10, 11과 變數 12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모두 有意相關關係임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상관관계들 보다 훨씬 강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분석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첫째로 농촌주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만과 그들의 사회전체에 대한 태도, 즉 무규범성과의 상관관계에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들의 사회 전체에 대한 不信 또는 회의적 태도가 그들의 농정에 대한 태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社會組織과 규범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태도가 否定的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농촌 주민들이 居住地域에서 얼마나 잘 統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주 부락의 주민들끼리 단결이 잘되어 있고, 자기 동네에서는 전통적인 相扶相助 정신 속에서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농정에 대한 불만이 적다는 것이다. 동네 인심이 박해졌고, 주민들끼리 서로 無關心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농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

이다.

끝으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要因은 주민들이 자기 부락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고장이 살기 편하다고 믿고, 앞으로 發展性이 있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태도가 肯定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要因에 비하면 자기 마을에 대한 滿足度가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이 점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즉 농민들의 사회 전체에 대한 不信感이 줄어들고, 자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태도도 好轉될 것으로 믿어지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부락이야말로 살기 편한 곳이고 앞으로도 발전성이 있다고 믿게 할 때 정부에 대한 태도, 특히 農業政策에 대한 評價가 肯定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앞으로의 농정의 방향에 관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성 있는 암시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Ⅲ. 結論 : 새 農政의 方向

최근에 제시된 농수산부의 정책적 모토(motto)에 의하면 새 農政의 方向은 “農民의 信賴回復”이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이것을 중심으로 設定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農政의 方向을 “농어민을 친부모와 같이 받들고, 그 바램을 구현하는 성실한 농정을 펴 농어민의 신뢰를 회복한다”에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구

체적인 정책 목표를 농정, 서정, 통계, 유통의 개선 내지 개혁에 두고 있다.

지금 소개한 정책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데 있다. 이미 앞의 자료가 보여 준 것처럼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이 국가의 농업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음이 경험적 사실이라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판명될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對 政府態度, 특히 農業政策에 대한 견해가 否定的인 이유는 복잡한 것이고 한 두가지의 간단한 사항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구체적인 농업정책이나 시책(예로서 價格安定 政策이나 소득 증가를 위한 시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주민들의 社會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認識내지 평가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현재 傳統的 農耕社會에서 近代產業社會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때 傳統的인 價値觀은 하나 하나 무너지면서, 새로운 산업사회에 맞는 價値觀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傳統的인 價値와 새로이 일어나는 價値觀의 틈바구니에서 생활이나 행동의 기준을 잃기 쉬우며, 그 결과 안정된 사회의 基調가 되는 社會規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불신감과 회의에 빠지기 쉽고 세상을 끝갈 비탄하게 된다. 특정된 정책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정부기구나 관료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노미적 상태의 당연한 결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어나 지성인들의 사명과 역할은 크고도 중대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어나 지성인들은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社會的 규범과 生活의 原則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신임 장관의 새 농정의 방향인 “農民의 信賴 回復”은 중요한 政策的 意味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민의 對 政府 見解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농민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그들이 농촌 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만

족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이고 長期的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해서 발전성이 없다고 믿을 때 애석해 하면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고,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不滿이 심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인가 농촌 주민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 자그마한 정책적 고려나 施策이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앞의 자료가 암시해 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註 1. Emile Durkheim, *Suicide*, New York, Free Press, 1966.
 2. 東亞日報, 1980年 1月 1日字 參照.